

멋진 내 가방 오 새로운 여행 친구

11월 28일 토요일 토요일 날씨는 나쁘지 않았고 좋았다. 이번 토요일에는 여수를 가기로 했다.

여수를 가기전 아빠가 옷을 사야한다고 해서 백화점에 갔다. 아빠가 맘에 드는 옷을 골라서 입었다.

☆☆
맘에 들었는지 그것을 사려고 하였다. 근데 나도 무언가 사고싶어서 곰곰히 생각해 보니 가방을 사고싶었다.

그래서 엄마에게 바로 '엄마 나 저기 매장에서 가방 사고 싶어.' 라고 말했다.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는데

엄마가 '그래! 알겠어. 조금만 기다려!' 라고 말하셨다. 그 말이 난 너무너무 신이났다. 그렇게 약 10분 정도가

흐르고 엄마가 가방을 사러가라고 했다. 들뜬 마음으로 그 매장 안을 헤맸다. 예쁜 가방들이 많았다.

매우 고민이 됐다. 내 머리속에서는 '이걸 살까? 아니면 이것도 이쁜데 아니면 저게 더 이쁜 것 같아.'

하여 머리속에서 매우 고민이 됐다. 다시 둘러보던 중에 맘에 드는 걸 찾았다. 그 가방은 검정색이 크로스백이었고

너무 예뻐서 크게 맘에 든다고 엄마에게 말을 했더니 엄마가 바로 사주셨다. 너무 신이났다.

그 가방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집으로 갔다. 이제 여수를 준비하면서 그 가방을 써이 보았는데

너무 이뻐서 고민하면서 산보장이 있었다. 그 새로운 가방 친구와 같이 여수에서 가보냈다. 이번 가방은

후회하기 않을 것이다. ~~그~~ 여수 여행을 즐겁고 알차게 보내 싶었다.

덕분에